

연중 22주일 (A해)

손상오 신부

Fine

주 - 님 저 의 하 느 님 제 영 혼 이 주 님 을 목 말 라 하 나 이 다

1. 주 하느님, 주님은 저의 하느님, 저는 주님을 찾나이다
2.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
3. 이렇듯 제 한평생 주님을 찬미하고
4. 정녕 주님께서 제 도움이 되었으니

제 영혼이 주님을	목 말 라 하나이다	물기없이 마르고 매마른	땅 에 서
이렇듯 성소에서	주 님 을 바라보나이다	주님의 자애가 생명보다	낮 기 에
주님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	들 - 어 올리오리다	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	배 불 러
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	제 - 가 환호하나이다	제 영혼이 주님께	매 달 리 면

D.C.

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 나 이 다
 제 입술이 주님을 찬미하 나 이 다
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주님을 찬양하 나 이 다
 주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 나 이 다